“혜암선, ‘한류불교’ 이끌 수행 모델”

혜암진흥회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국제학술대회’

9월 5~6일 해인사 보경당서 진행
혜암선 통해 韓불교 세계화 모색
“혜암 구도정신 세계화 주요 동력”
선사 유품 특별전 ‘빈가보장’ 개최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후학들을 경책했던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1920~2001)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선사상과 발자취를 선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9월 5일~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제10대 조계종 종정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4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해 11편의 논문과 24편의 논평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혜암 선사의 가르침을 되짚어보며 선사의 선사상을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틀 동안 이어진 학술대회는 총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혜암 선사의 선사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종교문명 전환기 불교의 세계화 담론과 혜암사상’을 발표한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는 “서구의 종교는 황혼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이유로 서구 사회는 새로운 종교나 철학 사상을 갈구하고 있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시절 인연이 도래하고 있다“고 현 시대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혜암 선사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요익중생을 위한 자비행은 한국 조사선의 세계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사선 전통을 계승한 혜암선을 통해 ‘한류불교(K-Buddhism)’의 세계화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혜암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영상으로 발표한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철학 · 종교학과 교수는“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혜암 선사의 가르침은 목표지향적인 현대사회에 일침을 놓는다. 선불교는 목표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볼 것을 요구한다”면서 “혜암 선사의 삶은 우리 사회와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선사의 삶은 그 만큼 철저히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혜암선사문화 진흥회는 9월 5~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부에서는 혜암 선사의 수행론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법문을 통해 살펴본 선수행과 견성성불, 선사상의 특성, 혜암 선사의 성격과 표현원리, 실참과 사상의 상관성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황금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혜암 선사의 선사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선사 혜암은 조계종의 가장 모범적 전통 수행자이며, 전통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모범적인 간화선 종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혜암 선사의 ‘동중공부(動中工夫, 시끄러운 가운데 선수행)’에 대해 “백장청규의 정신아래 수행과 일이 하나로 이어지는 선가의 수행정신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며 “이는 간화선의 본령이 일상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3부는 혜암 선사의 선사상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중생제도의 활동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14년과 2019년에 걸쳐 3번째로 개최됐다.

‘혜암선이 한국선불교에 미친 영향’을 발표한 김성규 영남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혜암 선사는 법문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려 노력했다”며 “체계적인 법문으로 교육의 경계를 두지 않는 선승이며 승가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헌 종법에 율장의 화합정신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혜암 선사의 삶과 사회에 끼친 영향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 등에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한 방향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학술대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진행됐으며, 참석하지 못하는 발제자들은 영상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일반 불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해인사TV’와 ‘BBS불교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해인사성보박물관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 ‘빈가보장(貧家寶藏) - 가난한 집에 보물’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 해인총림 다주 여연 스님, 해인사성보박물관장 원학 스님을 비롯해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동참했다.

전시회를 통해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선사의 유품으로 가난은 무엇이며 참된 보물은 무엇인지 일러주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노사께서 평소 애송하시던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서 ‘몸이 가난한 것이지 어찌 도가 가난한 것이겠는가? 몸으로는 누더기를 걸쳐 입었지만 마음엔 최고의 보물을 가졌다네!라는 구절이 있다”며 “결국 ’ 가난한 집의 보물이란 눈에 포착되는 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보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혜암 선사의 묵서와 평소 사용하던 장삼, 가사, 안경, 삭도, 친필 원고 등 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마련돼 있다. 전시는 10월 4일 까지다.

한편, ‘혜암 성관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는 9월 19일 오전10시 30분 해인사 대적광전 탑마당 일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불광사 법회 금지 말라” 판결 후폭풍

코로나 방역으로 소강상태서 충돌 예상

파행에 지난해 법화 중단
양측 소송 진행 중 충돌 요소

정부의 방역지침 권고사항 외에 법회 행위 금지를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9월 1일 박홍우 11대 불광사 신도회장 등이 제기한 간접강제신청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스님 등이 원고 측의 법회를 방해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불광사는 불광법회 내에 스님이 법석에 오르자 박홍우 11대 불광사 신도회장을 위시한 일부 신도들의 반발로 법회 파행이 이어지자 결국 법회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박홍우 11대 신도회장 측은 법회와 법회 준비를 위해 사찰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봉쇄되고 방해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불광사 측은 11대 신도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2대 신도회장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11대 신도회장 측은 회당단 임명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4월 법원은 지정 스님 측이 개정회칙 준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자 지정 스님 측도 7월 명등회의 등이 주관한 내부회칙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불광사 측의 법회 중단 선언과 이어진 코로나 기간 방역 준수를 겸한 소강상태는 법회 강행과 금지 등을 둘러싼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노덕현 기자

조금 특별한 동국대 신입생 모집

코로나로 비대면 전형,
출결, 봉사활동은 평가 배제



동국대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신입생들의 엄정한 평가를 위한 신입학 모집요강 변경을 공지했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고 평가기준을 세밀화해 우수인재를 적합하게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동국대는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요강 변경안을 발표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류제출은 방문제출이 불가능하며 우편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면접고사 방식은 당초 유증상자의 비대면 면접을 빼면 대면 면접으로 진행키로 했으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전면 비대면 면접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감안해 출결과 봉사활동 등 학생부 비교과 성적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며 논술과 실기전형을 통해서 선발키로 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던 대구지역 학생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일반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실기시험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예체능 계열 선발도 일부 변경된다. 먼저 연극학부의 경우 1단계 기초실기 대면평가가 영상으로 대체된다.

스포츠문화학과는 축구와 농구 미니게임을 통해 평가하던 데서 개별 포지션 평가가 진행된다. 스포츠문화학과 실기 지원 자격은 완화된다.

야구부문 투수의 경우 통산 15이닝 이상 자격에서 13이닝 이상으로 자격이 낮아지며 농구부문도 2019년 1월부터 실적기준에서 2018년 3월 실적으로 반영범위가 확대된다. 역량평가도 농구부문은 1개 학년 경기실적에서 2개 대회 경기실적으로 확대 변경되고 야구부문은 타자 최고 점수 타석수를 100타석에서 80타석 이상으로 낮췄다.

동국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형 과정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다양한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형평성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 혹은 방식을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대학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동국미래교육포럼’도 9월 11일 출범시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불교음악상 공모
9월 30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음악원이 불교음악 활성화를 위한 제5회 불교음악상을 공모한다.

이번 불교음악상 공모는 불교문화 발전에 공헌한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한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봉은사에 위치한 불교음악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인 올해의 불교음악인에는 상금 500만 원, 신인상인 올해의 불교음악신인에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시상은 11월 중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음악원은 제7회 신진 찬불가 작곡 공모도 진행한다. 기한은 10월 16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